

『痘瘡經驗方』의 편집본과 그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연구원
김상현*

A Study on Compilations of 『Duchanggyeongheombang』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Kim Sanghyun*

Researcher at 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 To investigate how 『Duchanggyeongheombang』 has been adopted and edited in practical texts such as 『Gosachwalyo』, 『Sallimyeongje』, 『Gosasinseo』.

Methods : Based on the disassembled verses of a paragraph in the 『Duchanggyeongheombang』, the 『Duchanggyeongheombang』 contents in 『Gosachwalyo』, 『Sallimyeongje』, 『Gosasinseo』 were compared and examined.

Results : 『Gosachwalyo』 directly summarized and quoted the contents of 『Duchanggyeongheombang』 written by Park, Jinhee, while the contents in 『Sallimyeongje』 and 『Gosasinseo』 are mostly similar, summarizing and quoting from 『Gosachwalyo』.

Conclusions : In the perspective of text categorization, while the professional and specialized contents of 『Duchanggyeongheombang』 has been excluded, it was edited in ways of increasing practicality. As these texts were widely dispersed to the public, we can conclude that 『Duchanggyeongheombang』 was very influential in the treatment of douchang(痘瘡, smallpox) among the public.

Key words : Duchanggyeongheombang, Gosachwalyo, Sallimyeongje, Gosasinseo, text categorization(類書)

* Corresponding Author : Kim Sanghyun

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 042-868-9549 Fax : 042-869-2756 E-mail : kshr@kiom.re.kr

Received(January 20, 2020), Revised(January 30, 2020), Accepted(February 2,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조선 후기 自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痘瘡 方書가 출현하면서 痘科學의 발달을 이끌었다.¹⁾ 朝鮮朝 孝宗, 顯宗 연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朴震禧의 『痘瘡經驗方』 또한 그러한 痘瘡 專門醫書 중 하나이다. 이 서적은 李蕃의 『龍山療痘篇』의 간행 동기가 되기도 하였고,²⁾ 柳璠이 그 서적을 祖述하여 『古今經驗活幼方』을 짓기도 하였다.³⁾ 간행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점에서 『痘瘡經驗方』이 조선 후기 痘科學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痘瘡經驗方』에 드러난 두창 치료의 특징에 대해 다루었던 선행연구에서도 이 책이 상당한 과급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언급하였는데, 그 근거로 다양한 異本의 존재와 다른 서적에서 언급되는 사례를 들었다.⁴⁾ 그러나 해당 연구의 논지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검토하지는 못하였고 해제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데에 그쳤다. 더욱이 『痘瘡經驗方』에 대한 기존 연구 중에서 다른 서적에서의 인용 사례를 언급한 것은 해제나 서평뿐이고 그밖에 구체적인 분석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마침 『痘瘡經驗方』의 번역 연구를 통해 『攷事撮要』와 『攷事新書』에 수록된 「痘瘡經驗方」도 함께 번역하게 되어 『痘瘡經驗方』의 내용이 인용되어 수록되는 사례를 확인할 기회가 생겼다.

사실 『攷事撮要』나 『攷事新書』는 醫書가 아니고 일종의 백과사전처럼 다양한 내용을 분류하여 엮은 類書이다. 그러다보니 분명 독자층도 달랐을 것이라 추정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그런 독자층을 위해 어떻게 각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攷事撮要』, 『攷事新書』와 집필 성격이 비슷하고 간행 시기가 전후로 겹치면서 마찬가지로 『痘瘡經驗方』을 수록하고 있는 『山林經濟』를 함께

비교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痘瘡經驗方』이 『攷事撮要』, 『攷事新書』 및 『山林經濟』와 같은 類書에 편집되어 인용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보고하고, 그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역 痘瘡經驗方』⁵⁾과 『국역 山林經濟』⁶⁾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수록된 『痘瘡經驗方』은 원간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규장각본을 모본으로 삼았고, 『攷事撮要』는 顯宗 15년(1674) 간행본인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모본으로 삼았으며, 『攷事新書』는 간행년도 미상인 장서각본을 모본으로 삼았다. 또 『山林經濟』는 간행년도 미상인 三木榮 舊藏本을 모본으로 하였다.

디지털화 한 『痘瘡經驗方』의 원문을 단락별로 분해한 뒤, 『攷事撮要』, 『山林經濟』, 『攷事新書』에서 해당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같은 행에 나란히 배치하였고, 『痘瘡經驗方』에 없는 내용은 별도로 행을 추가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치된 표의 비교를 통해 각 서적에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III. 본론

1. 『攷事撮要』의 「痘瘡經驗方」

1) 「痘瘡經驗方」의 핵심 내용 수록

朴震禧의 『痘瘡經驗方』은 크게 총론 부분, 전주기에 따른 처방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총론의 대부분은 『東醫寶鑑·雜病篇·小兒』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⁷⁾ 하지만 『攷事撮要』의 경우 禁忌 부분을 제외하면 『東醫寶鑑』을 인용한 총론 부분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총론 중 『東醫寶鑑』의 전체 맥락과는 다소 동떨어진 채 당시 잘못된 관습을 비판하고 虛證으로 빠지지 않도록 脾胃의 氣

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331.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332.

3) 안상우, 고의서산책(551) - 「痘瘡經驗方」 ①, 서울. 민족의학신문. 868호. 2012.

4)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4). p.49.

5)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6) 민족문제추진회, 국역 산림경제 II. 서울. 민문고. 1989.

7)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4). p.40.

를 보해야 한다는 논지의 글이 쓰여 있다.⁸⁾痘瘡을 무속의 영역으로 여기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음식 섭생을 하지 않은 풍토에 대해 경계하면서 실제 그러한 환자를 만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존의 의서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서 朴震禧의 저술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痘瘡經驗方』 기준 총 473자의 해당 문단을 『攷事撮要』에서는 459자로 약간 축약해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攷事撮要』 「痘瘡經驗方」에서 11% 가량의 분량에 해당한다.

『痘瘡經驗方』의 각론 내용은 痘瘡의 週期를 發熱, 出痘, 起脹, 貫膿, 收靨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후와 그에 따른 치법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분명 『諺解痘瘡集要』,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⁹⁾ 『痘瘡經驗方』에서 활용된 처방이 기존 의서에 비해 독창적이고, 그것을 도출한 근거로 보이는 경험 의안을 더불어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攷事撮要』에서는 그런 『痘瘡經驗方』의 독창적인 치료법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朴震禧의 경험 의안으로 보이는 내용들은 전혀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痘瘡經驗方』에서 四聖回天湯이라는 처방과 더불어 이 처방을 창방한 전유형이라는 사람의 글을 수록하고 있는데, 『攷事撮要』에서는 四聖回天湯의 方文은 수록하되 전유형의 글은 인용하지 않았다. 다만 方文에 朴震禧의 경험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攷事撮要』에서 인용하고 있다.

『攷事撮要』의 『痘瘡經驗方』 인용 원칙이 일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컨대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원론적인 내용은 배제하였고, 朴震禧의 『痘瘡經驗方』의 중요한 골격은 유지하되 실제 활용 사례에 해당하는 경험적 내용은 대체로 수록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痘瘡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

은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다양한 話者의 가능성 및 내용 유입

『痘瘡經驗方』에서 朴震禧의 저술로 보이는 글에는 ‘나[余]’라는 화자가 등장한다. 총론 부분이나 그 외의 경험 의안에서도 그렇고 일부 方文에도 화자가 드러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痘瘡經驗方』에 언급된 話者와 『攷事撮要』의 인용 여부

『痘瘡經驗方』 내 話者 언급 부분		『攷事撮要』 인용 여부
(총론) 辨痘證	무릇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 내가 주인에게 말했다. 夫余觀一人, ... 余謂主人曰,	○
(경험 의안) 出痘時變證 經驗	내가 생각하기에 두창 돋은 것이 손에 걸리지 않음은 잘 돌지 않은 것이고, 余意以爲痘不碍指者, 不快出也,	×
(경험 의안) 出痘時變證 經驗	(두창이라고)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시험 삼아 나를 불렀는데, 내가 살펴보니 과연 진짜 두창이었다. 不以爲疑, 而試邀余, 審察則此果眞痘也.	×
(경험 의안) 起脹三日	그러나 내 뜻은 비록 독이 심하다고 여길지라도 기(氣)가 허하면 (두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而余意則以爲毒雖多, 而氣虛則無以成就,	×
(내용 서술) 貫膿三日	비록 그렇더라도 내가 두창 환자를 많이 보아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雖然, 余觀痘疫多至數千人,	×
(경험 의안) 貫膿三日	그 집안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었는데, 其族人來問於余,	×
(방문) 收靨三日 消毒飲	하지만 내가 이런 증상을 많이 봤는데 모두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았으나, 然余見此證多矣, 皆勿藥自愈,	○
(방문)	어떤 집안에 두창이 돌았는데	○

8)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대한한의학연구원. 2019. pp.19-21. “人家父母溺於慈愛 ... 痘家之所宜深戒也.” 『痘瘡經驗方』

9)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p.41-42.

收醫三日 四聖回天湯	데 처음부터 약을 써서 치료 하지 않다가 위중한 증후가 많이 나타난 뒤에서야 나에 게 물으러 왔다. 而人家痘疾, 自初不用藥治, 而危證雜出然後, 始問於余.
---------------	--

이상의 내용을 보면 경험 의안을 삭제함으로써 話者が 드러나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총론의 내용이나 방문에 실린 話者の 의견은 살리는 등 일관되지 않은 편집 방침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痘瘡에 수반되는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 [反眼]’에 대한 의론과 경험이 『攷事撮要』에서 처음 보이는데,¹⁰⁾ 여기서도 나[余]라는 話者が 등장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증상은 반드시 딱지가 앉을 시기에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윗 속눈썹이 반드시 거꾸로 뻗치거나 앞으로 곧게 뻗쳐 생김새가 평상시와 다르거나 윗 속눈썹 안에 붉은 살이 늘어져 있다. 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황이 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미친 소리를 하고 귀신을 본다. 대개 이런 형증은 옛 방서(方書)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독함만 알 뿐 구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내가 비록 의술에 어둡지만 두창(痘瘡) 환자를 경험한 것이 비단 수천 명뿐이 아닌데, 이 증상을 보고 구제하지 못한 경우가 전부 5명이었다. 그 개탄스러움을 참지 못하여 의원을 찾아가 물어보기를 "눈꺼풀은 비위(脾胃)에 속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남은 열이 비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위의 열을 없애는 약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논의하여 정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 또한 스스로 이런 증상을 만났다면 결코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다. 마침 약관의 한 사람이 두창을 앓아 처음부터 그 증세가

매우 위험하였는데 온 집안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여겼고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친족들도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였다. 나 또한 결코 구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증상에 따라 약을 썼다. 딱지가 앉을 때 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그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시험 삼아 약을 써서 만에 하나 있는 행운을 바라는 것만 못하다 생각하였다. 마침내 옛 서적을 찾아보고 스스로 방문(方文)을 지어 연고 석고탕(連翹石膏湯)이라 명명하였다. 급히 약을 지어 2첩을 썼더니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이 나았고 끝내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다. 스스로 터득하기에 이 약은 쓰자마자 좋은 효과를 보이며 증세가 위중할 경우라도 3~4첩이면 바로 낮고 열에 하나라도 실패가 없었으니, 두창을 앓는 환자의 집안도 이를 살펴야 할 것이다.¹¹⁾

문제는 이 내용이 현전하는 『痘瘡經驗方』의 다른 판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話者를 朴震禧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失傳되었다가 『攷事撮要』에 다시 실린 朴震禧의 글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話者의 글이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높은 부분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여기 등장하는 의론과 ‘連翹石膏湯’이라는 처방이 기존 의서에서 보이지 않는 독창적인 내용이고 話者 스스로도 痘瘡을 치료한 경험이 많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痘瘡經驗方』에 수록된 方文에서 효능을 언급한

10) 해당 내용이 19세기 후반 간행된 『宜壘』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痘瘡方을 『攷事撮要』에서 인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안상우 외 5인. 국역 의회 IV.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p.43.)

11)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145. “必出於收醫之時, 而其爲形也, 上睫之毛, 必倒豎, 或直豎向前所見異常, 或上睫之內, 有紅肉垂下. 有此症者, 惛慌不省, 或狂言見鬼. 蓋此形症, 古方之所不論, 故傍人但見其危篤, 而不知所以救之方. 余雖素昧醫術, 經驗痘瘡, 不啻數千人, 遇此症, 不能救者, 凡五人. 不勝其慨然, 訪問於業醫者曰, 眼胞屬脾胃, 而有此症者, 想必餘熱入脾胃故也, 請教, 以只除脾胃熱之藥, 則皆曰不可知也. 莫有議定者, 故余亦自以爲若遇此症決不可救矣. 適有一冠者患痘, 自初極其危險, 渾家無望回生, 族人隣里聞之者, 皆謂必死. 余又決意難救, 而隨症用藥, 僅得生道矣. 收醫之時, 此症忽出, 余意立而視其死, 不若試用方藥, 以僥萬一之幸. 遂按古書, 自作方文, 名之曰連翹石膏湯. 急劑用之二貼, 而反眼即差, 終至生全. 自得此藥用輒神效, 而但症勢重者, 三四貼必愈, 十無一失, 痘家亦可審察矣.” 『攷事撮要』·痘瘡經驗方

부분이 『攷事撮要』에서 구체적인 서술로 변경된 부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痘瘡經驗方』 내 化毒湯의 方文 중 ‘(효능이) 매우 신묘하다[極妙]’는 내용이 ‘두창이 드물게 돋도록 할 뿐만 아니라 두창을 앓은 뒤에 여러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니 이 약은 정말로 두창 초기에 쓰는 성약(聖藥)이라 일컫는 것이다’라고 길게 서술되어 있다.¹²⁾ 이는 실제 처방을 활용해 본 경험에서 나온 내용으로서, 이 글을 『攷事撮要』에 수록한 話者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 또한 朴震禧의 글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새로운 話者 개입 가능성을 가진 새로 유입된 부분이다.

요컨대 『攷事撮要』에는 『痘瘡經驗方』의 경험 의안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다소 주관적인 내용을 배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朴震禧라는 話者가 드러난 글을 일부 수록하고 있다. 또한 『攷事撮要』에는 실제 痘瘡 치료 경험이 있어 보이는 話者의 글이 새로이 유입되어 있으며, 이때의 話者는 『痘瘡經驗方』을 저술한 朴震禧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3) 方文의 삭제 및 간소화

앞서 『攷事撮要』에서는 『痘瘡經驗方』의 치료법을 대체로 인용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일일이 대조해보면 삭제된 方文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일단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方文 또한 신지 않은 처방이 參蘇飲, 加味敗毒散, 加味六一散, 薄荷湯, 化毒四物湯, 解毒防風湯, 化毒湯合導赤散, 擦牙散合龍石散으로 총 8개이다. 이 중에 化毒湯合導赤散과 擦牙散合龍石散은 『痘瘡經驗方』에서 경험 의안에 실제 활용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方文도 따로 만들어 둔 것인데, 『攷事撮要』에서는 경험 의안을 전혀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의 처방 또한 당연히 실려 있지 않다.

본문에는 언급되었으나 方文은 따로 수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三豆飲, 豬尾膏, 如聖飲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그 처방 구성이

나 조제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神功散, 內托散은 각각 ‘처방이 『萬病回春』에 보인다[方見回春]’고 하였고, 定中湯은 ‘처방이 『東醫寶鑑』에 보인다[方見寶鑑]’고 하였다. 內托散의 경우 처방 구성은 『萬病回春』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특이하게도 『痘瘡經驗方』에 쓰인 가감 활용례는 수록하였다. 그리고 『痘瘡經驗方』에서 자주 언급된 保元湯이 『攷事撮要』에서도 수록되어 있지만, 『痘瘡經驗方』만의 독창적인 가미 정보 중 일부는 인용하지 않았다.

사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痘瘡經驗方』에 비해 전반적으로 처방 수를 줄였고, 方文 또한 생략하였다. 이러한 편집 방향과 관련된 단서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먼 지방에서 약이 없을 경우는 땀이라도 많이 나게 하면 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검게 푼 꺼지는 상황은 면할 것이다.¹³⁾

이때, 형색(形色)을 살피고 허실(虛實)을 가려서 약을 쓸 수 있다. 먼 지방에서는 약물을 쉽게 만들어 쓰지 못하므로 우선 논하지 않는다.¹⁴⁾

이는 『痘瘡經驗方』에는 없는 문장으로서 『攷事撮要』 편집자의 서술로 추정된다. 널리 배포해서 활용토록 집필된 『攷事撮要』의 성격상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내용을 전부 신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백과사전 성격의 類書와 전문적인 醫書 사이의 집필 방향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집필 방향 때문에 方文을 삭제하거나 전문 醫書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내용을 간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12)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114. “則非但能令稀痘, 且無痘後諸症, 眞所謂痘疫初程之聖藥也.” 『攷事撮要·痘瘡經驗方』

13)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112. “若退方無藥, 只宜多汗, 而能食者, 免黑陷.” 『攷事撮要·痘瘡經驗方』

14)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p.118. “此時, 可以觀形色, 卞虛實, 用藥也. 退方藥物未易劑用, 故姑不論之.” 『攷事撮要·痘瘡經驗方』

2. 『山林經濟』의 「痘瘡經驗方」

1) 『攷事撮要』 기반 핵심 내용 정리 및 話者 정리

『山林經濟』는 총 16志로 구성되어 있는데, 「痘瘡經驗方」은 그중 「救急」志에 속하는 소목이다. 각 志마다 序文이 실려 있으며, 「救急」의 서문에 따르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이는 『攷事撮要』의 집필 방향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痘瘡經驗方』에서 직접 인용했다기보다는 『攷事撮要』의 「痘瘡經驗方」을 저본 삼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일단 『痘瘡經驗方』에는 없다가 『攷事撮要』에 새로이 등장한 문장들을 『山林經濟』에서는 다소 다듬어서 수록한 부분이 보인다.

Table 2. 『攷事撮要』에 유입된 문장과 그에 대한 『山林經濟』의 인용

『攷事撮要』	『山林經濟』
若遐方無藥，只宜多汗，而能食者，免黑陷。	若無藥則只宜多汗，而能食者，免黑陷。
則非但能令痘稀，且無痘後諸症，眞所謂痘疫初程之聖藥也。	則能令痘稀，且無痘後諸症，痘初程之聖藥也。
此時，可以觀形色，卞虛實，用藥也。遐方藥物未易劑用，故姑不論之。	此時，可以觀形色，卞虛實用藥。
此時，或有四支百節皆痛者，或由痘未快出，或由未盡和解，而然勿藥自愈。	此時，或有四肢百節皆痛者，此由痘未快出，或由未盡和解而然，勿藥自愈。

『攷事撮要』에 처음 등장한 ‘눈이 뒤집어지는 증상[反眼]’에 대한 의론 및 方文 역시 『山林經濟』에서 인용하였는데, 기존에 371자이던 내용을 166자로 축약하였다. 또한 『攷事撮要』의 총론 부분에 朴震禧의 「痘瘡經驗方」을 인용한 부분을 『山林經濟』에

서는 핵심 내용만 추려서 수록하였다. 459자의 내용 중 풍토를 비판하는 부분 일부 및 경험한 사례를 앞뒤에서 빼고 62자의 요지만 남겨두었다.

그렇다고 마냥 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攷事撮要』에서 본문 중에 언급하였지만 方文을 제시하지 않은 처방 중 猪尾膏, 如聖飲의 구성 및 제법을 『山林經濟』에서는 간략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한 『攷事撮要』에서 『萬病回春』이나 『東醫寶鑑』에 나와 있다고만 언급했던 神功散, 內托散, 定中湯의 구성 및 제법을 『山林經濟』에서는 수록하고 있다. 또한 水楊湯의 方文에서 『東醫寶鑑』과의 대조한 교감 내용을 덧붙였다.¹⁷⁾ 이러한 사례를 미루어볼 때 『山林經濟』의 「痘瘡經驗方」은 『攷事撮要』의 「痘瘡經驗方」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되 기존의 醫書를 참조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攷事撮要』에서 일정치 않게 등장했던 話者를 『山林經濟』에서는 정리하려 한 흔적이 보인다. 『山林經濟』에는 기본적으로 ‘나[余]’라는 話者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그나마 약간 드러난 문장이 ‘스스로 방문(方文)을 지어 연교석고탕(連翹石膏湯)이라 명명하였다[自作方文, 名之曰連翹石膏湯]’라는 부분이다. 『山林經濟』 역시 『攷事撮要』와 비슷하게 백과사전 성격으로 집필된 책인데, 인용한 문헌의 話者를 정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山林經濟』 저자의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글을 다듬은 것이라 생각된다.

2) 판본별 다른 내용의 유입

『山林經濟』는 刊本이 없이 筆寫本만 전하고 있다 보니, 판본별로 다른 내용이 유입된 경우가 있다.¹⁸⁾ 한독박물관본 『山林經濟』에는 「痘瘡經驗方」 말미에 110자가 추가되어 있는데 『神效方』과 『潛潭』이라는 책을 인용처로 기록하고 있다. 瘡疹이 검게 폭 꺼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훈증법과 崔宇量이라는 조선의 醫家가 두창에 걸린 아들을 치료한 사례를 기록

15) 박상영. 『산림경제』 「구급」의 특성과 의사학적 의의. 한문고전연구. 2015. 30. p.373.

16) 연구에 활용한 『攷事撮要』는 1674년에 발간된 판본이고 『山林經濟』는 팔라도 1723년에 쓰여진 판본이기에 선후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17) 민족문제추진회. 국역 산림경제 II. 서울. 민문고. 1989. p.三七. “寶鑿曰, 春冬用枝, 夏秋用葉, 水一釜, 入楊五斤”

18) 민족문제추진회. 국역 산림경제 I. 서울. 민문고. 1989. pp.10-12.

한 것인데, 인용처를 밝히는 형식이 이례적이기도 하고 「痘瘡經驗方」의 전체 맥락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 傳寫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서각본 『山林經濟』에는 「痘瘡經驗方」 말미에 기존 분량에 상응하는 분량만큼 추가된 내용이 있다. 실제 치료 경험이 細註로 추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通治, 痘後雜症, 辨痘形色, 辨痘虛實, 辨痘陰陽症, 聲音, 咽喉, 腰腹痛, 驚搐, 嘔吐, 泄瀉, 痰喘[附咳逆], 煩渴, 痒痛, 腹脹, 自汗, 斑爛, 寒戰, 尿澁, 便秘, 倒靨, 痘後雜症, 痘後翳膜, 痘後癰癤, 附孕婦痘瘡, 附斑疹, 飲食禁忌의 편제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거기에 수록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東醫寶鑑』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朴震禧의 『痘瘡經驗方』의 집필 방향이 痘瘡의 全週期에 따른 치법 제시에 있다는 전제 하에, 추가된 내용은 종합 의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서 『痘瘡經驗方』의 원형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역시 傳寫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3. 『攷事新書』의 「痘瘡經驗方」

1) 『山林經濟』와의 높은 일치도

사실 『攷事新書』의 「痘瘡經驗方」은 『山林經濟』의 「痘瘡經驗方」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앞서 언급되었던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제외하면 『山林經濟』의 「痘瘡經驗方」은 총 3112자이고 『攷事新書』의 「痘瘡經驗方」은 총 3080자이다. 소소한 부분에서 글자의 출입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내용은 거의 같다. 따라서 그 성격 또한 『山林經濟』와 마찬가지로 『攷事新書』의 「痘瘡經驗方」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면서 기존의 醫書를 참조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서적간의 영향을 살펴보자면, 1771년에 편찬된 『攷事新書』는 『攷事撮要』를 대폭 개정한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 醫藥門에 수록된 「痘瘡經驗方」은 『山林經濟』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攷事新書』의 「痘瘡經驗方」을 요약한 원고가 따로 존재했고 그것이 『山林經濟』나 『攷事新書』에 영향을 주었을 시나리오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山林經濟』와 『攷事新書』에 수록된 「痘瘡經驗方」은 내용이 유사하

며 같은 계보로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IV. 고찰

이상으로 『攷事撮要』, 『山林經濟』, 『攷事新書』에서 『痘瘡經驗方』을 인용한 특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약간의 내용 유입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痘瘡經驗方』을 뼈대로 하여 요약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비록 경험 의안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배제하거나 처방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전체 내용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痘瘡를 치료하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몇몇 가감례나 처방은 朴震禧의 치료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類書를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 없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볼 수 있겠다. 일단 첫 번째로 각 類書에 실린 콘텐츠의 성격이 주목할 부분이다. 각 類書에 실린 의학적 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救急, 癰癤 등의 내용과 함께 痘瘡經驗方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각종 간편 의서들의 보급과도 관련이 있다.¹⁹⁾ 국가적 차원에서 의학 지식을 집대성 하는 동시에 긴급히 반포해야 할 내용들은 간략한 형태로 간행한 것인데, 그런 유용한 내용을 類書의 저자들이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痘瘡經驗方』의 구성에 주목할 만하다. 『痘瘡經驗方』은 痘瘡를 앓으면서 발현되는 증상과 처방을 全週期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단계에 써야 할 방법을 쉽게 고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다거나 예후가 좋은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고, 위험한 증상일 경우 급히 약을 쓰도록 인도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해볼 수 있는

19) 신동원은 태산 의서, 구급 의서, 두창 의서, 벽운방과 같은 간편 의서를 간행하여 보급한 것이 조선 의학의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경기도 파주. 들녘. 2015. pp.63-71.)

구조라서 효용이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類書를 집필하던 저자들도 그 내용을 수록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類書의 저자들은 그 정보를 활용할 경우 탁월한 효능이 있다든지 약을 구하기 힘들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등 실제 활용한 후의 피드백을 추가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정보를 채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朴震禧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유용한 경험도 기술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朴震禧라는 痘瘡 專門醫의 지식이 그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높인 類書 저자들에 의해 「痘瘡經驗方」라는 결과물로 재생산되어 전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類書들은 다양한 판본으로 민간에 반포되었다. 따라서 『痘瘡經驗方』이 조선시대 민간의 痘瘡 치료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 痘科學에서 『痘瘡經驗方』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불리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는 본고에서 연구한 類書 뿐 아니라 『龍山療痘篇』, 『古今經驗活幼方』, 『經驗痘方』, 『時種通編』과 같은 醫書에도 『痘瘡經驗方』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 분석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겠다.

V. 결론

朴震禧의 『痘瘡經驗方』과 『攷事撮要』, 『山林經濟』, 『攷事新書』에 각각 인용되어 있는 「痘瘡經驗方」의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攷事撮要』의 「痘瘡經驗方」는 朴震禧의 『痘瘡經驗方』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약 및 인용하였고, 『山林經濟』와 『攷事新書』의 「痘瘡經驗方」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며 『攷事撮要』의 「痘瘡經驗方」을 요약 및 인용하였다.

둘째, 類書의 편집 방향에 따라 『痘瘡經驗方』에 실린 원문적 내용, 경험 의안, 처방 일부는 배제되었고, 필요에 따라 기존 醫書의 내용이나 다른 두창

처방이 유입되기도 하였다.

셋째, 朴震禧의 『痘瘡經驗方』은 비전문가가 활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고, 類書를 통해 전수됨으로써 조선시대 민간의 痘瘡 치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KSN20121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Reference

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2. 김상현. 『痘瘡經驗方』에 나타난 두창 치료의 특징과 그 의의.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4).
3. 김상현. 국역 두창경험방. 대전. 한국한의학회. 2019.
4. 민족문제추진회. 국역 산림경제 I. 서울. 민문고. 1989.
5. 민족문제추진회. 국역 산림경제 II. 서울. 민문고. 1989.
6. 박상영. 『산림경제』 「구급」의 특성과 의학적 의의. 한문고전연구. 2015. 30.
7.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경기도 파주. 들녘. 2015.
8. 안상우 외 5인. 국역 의회 IV. 대전. 한국한의학회. 2009.
9. 안상우. 고의서산책(551) - 「痘瘡經驗方」 ④. 서울. 민족의학신문. 868호. 2012.